

## 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7. 2. 21.

## 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# 1 제2금융권 가계대출 동향

- '16년 4분기중 가계부채는 47.7조원 증가하여(잔액 1344.3조원) 전년동기 및 전분기 증가액을 크게 상회하였음
  - \* 분기별 증가액(조원) : ('15.4Q)38.2 ('16.1Q)20.6 (2Q)33.9 (3Q)39.0 (4Q)47.7
- 은행권은 '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
  - \* 은행권 분기별 증가액(조원) : ('15.4Q)22.2 ('16.3Q)17.2 (4Q)17.4
- 보험,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, 판매신용의 경우 4분기에도 증가세가 확대되어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음
  - \* 보험권 분기별 증가액(조원) : ('15.4Q)3.6 ('16.3Q)1.9 (4Q)4.6
  -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(조원) : ('15.4Q)6.7 ('16.3Q)6.6 (4Q)7.5
  -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(조원) : ('15.4Q)1.7 ('16.3Q)3.5 (4Q)4.7
  - 판매신용 증가액(조원) : ('15.4Q)1.7 ('16.3Q)1.9 (4Q)4.8
- 이중 상호금융권은 담보인정기준 강화조치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,
  - \* 상호금융 비주택담대는 담보인정기준 강화조치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어 '17.1월(+0.2조원) 월중 증가규모는 '13년말(통계작성) 이후 최저수준
-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(3월)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예년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
  - \* 상호금융 주택대 증가(조원) : ('16.10)+0.9 (11)+1.1 (12)+1.2 ('17.1)+0.7('16.1 +0.3)
  - 새마을금고 주택대 증가(조원) : ('16.10)+1.5 (11)+1.3 (12)+1.8 ('17.1)+0.3('16.1 +0.4)
- 특히, 제2금융권은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, 금리상승 등 리스크요인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,
  - \* 취약차주 대출비중(%) : (은행 3.7 (보험 7.9 (상호금융 6.5 (여전사 15.8 (저축은행 32.3
  - 취약차주 : 다중채무자(3개이상 금융기관 대출) & 자산용(7~10등급) or 저소득(하위 30%)
-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전 과도기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◇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
⇒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적극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

## 2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말씀

□ 정부는 '17년에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

-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관리하고,
- ②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

### 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밀착 감독할 계획

○ 금년들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완화되었다고 하나,

- ① 금리인상 및 부동산경기 하방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,
- ②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(개별주담대·신용대출) 및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(집단대출)에 대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전될 우려도 있음

➡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, 제2금융권의 지나친 가계대출 확장은 '은행권→비은행권으로의 리스크 전이'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

- 특히 카드사태 등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, 더이상 '외연 확장'보다 '리스크관리'에 힘써야 할 때임

○ 금융당국도 각 중앙회와 협업하여 금년 상반기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

- '16.4분기에 증가폭이 컸던 보험 및 여신업권에 대해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금감원의 실태점검 실시
-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, 미흡한 기관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음

➡ 각 협회·중앙회에서는 특별점검에 앞서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체계를 점검하고, 미진한 부분은 적극 시정해 주시길 바람

### ②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드림

① 제2금융권에 3월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

➡ 다만,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先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, 이에 유의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람

- 분할상환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상향조정된 목표 비중(상호금융권 분할상환 15→20%)은 대체로 달성 가능할 전망

- 그러나, 아직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히 낮아 향후 금리인상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

\*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('16.12월 기준) : (은행) 43.0%, (상호금융) 10% 미만

➡ 단기위주의 수신 구조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도 힘써주시기 바라며, 당국도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나가겠음

②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(DSR) 활용을 통한 선진형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람

➡ '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'에 따라 앞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로드맵에 따라 DSR 활용토록 되어 있는 만큼, 그 활용방안을 적극 고민하고, 업권별 모범사례도 구축해 나가주시길 바람

③ 한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

➡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리적정성 점검을 통해 합리성을 결여한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,

- 제2금융권도 후순위 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 등 연체차주 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시길 바람

### 3 마무리 말씀

- 금융위원회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 
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강화에  
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
-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 
제2금융권이야말로 더욱더 리스크관리 강화 및  
취약차주 보호에 신경써야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음
- ➡ 정부도 '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'를  
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,  
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
-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 
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
- 수많은 단위조합·금고를 감독당국이 일일이 검사·조치할  
수 없는 만큼, 업권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함
- ➡ 제2금융권이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에 있어서는  
더 이상 은행의 추종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 
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
- 제2금융권 모두가 한마음을 갖고  
가계부채 문제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 
다함께 힘을 모았으면 함. 감사합니다.